

동구, '공유공간 다가치(다;같이) 플랫폼' 본격 운영

집 보관소·공유 스튜디오 등
충장로 종합안내소 역할 기대

충장로를 찾은 방문객들의 추억을 책임질 '충장로 공유공간 다가치(다;같이) 플랫폼'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17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충장상권 활성화 위해 조성된 '충장로 공유공간 다가치(다;같이) 플랫폼'은 관광과 쇼핑 등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객들에게 충장로의 속 깊은 매력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충장

로 종합안내소'다. 플랫폼은 충장로 3가(충장로 65·구스타벅스)에 위치해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1~3층 각각 다른 컨셉트로 운영해 이목을 끈다. 합한 내부디자인이 시선을 붙잡는 1층 '충장의 집'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이며, 방문객들을 위한 무료 편의 시설(사진 인화·휴대폰 충전·집 보관소)을 갖추고 있어 충장로 방문객들에게는 이미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2층 '충장프렌즈 굿즈샵'은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를 컨셉트로 충장축제의 귀여운 마스코트들이 전시·판매되는 공간이다. 오는 8월 중순부터 키링과 지비츠, 모루 인형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3층 여행자 기억저장소 '다담'은 근대와 1980~1990년대가 공존하는 장소로, 여행객들이 충장로에서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공유 스튜디오다. 방문객은 다양한 근대 개화기 시대의 의상과 소품을 대여해 멋스러운 근대화 컨셉트의 사진관에서 셀프 인생 샷을 찍을 수 있다.

동구는 유튜브를 포함한 여러 플랫폼으로 실시간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장비를 조성한 '셀프 스트리밍관'을 마련해 방문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공유공간 다가치 플랫폼이 광주 관광의 거점공간으로서 충장로의 위상을 제고하고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길 바란다"면서 "충장로 활성화를 위해 더 다양한 시도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평생학습 온라인으로 누린다
서구, 세큰대 동영상 강좌 제공

광주 서구가 18일부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동영상 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 서구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강의를 손쉽게 들을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이하 세큰대)' 누리집 또는 '내 손에 세큰대 서구' 앱을 통해 △chatGPT △AI인공지능 △유튜브(SNS) △자격증 △자기계발 △재테크 △창업커머스 △공예디자인 △컴퓨터활용 △라이프 △외국어 총 11개 분야 186개 강좌를 공유한다. 또 서구는 지난해 12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주인재평생교육원과 협약을 통해 세큰대서구 누리집과 앱에서 생활교양, 인문학 등 200편의 온라인 콘텐츠도 연계·제공하고 있다. 정성아 기자

'도전, 장애이해 골든벨' 성료
광산구장애인복지관

광주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6일 송정동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도전, 장애이해 골든벨'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송정동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13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온라인 퀴즈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됐다.

최후 1인 선정 방식의 고전적 골든벨 방식을 탈피, 낙오자 없이 누구라도 끝까지 문제 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은 일상에서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제도·편의 시설·문화 체육·상식 등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를 구성했다.

모든 문제 풀이가 끝난 후에는 학급 평균 점수에 따라 순위를 선정했다. 각 학년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반에는 '장애이해 척척박상'과 '장애이해 똑똑박상'이 수여됐다.

행사장에서는 축하공연과 손톱 관리(네일아트), 스테킹, 점자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이상태 광산구장애인복지관 관장은 "지역 청소년이 다양한 문제를 풀며 장애인권에 대해 몰랐거나 놓치고 있던 부분을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인권을 존중하는 인식과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청소년, 시민 참여 행사를 앞으로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서구, 행정안전부 장관상

광주 서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8800만원을 확보했다.

17일 서구에 따르면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 338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추진한 재난안전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주요 역량을 중앙재난관리평가단과 민간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최상위 종합평가다.

서구는 6개 분야 38개 평가지표 중 △전년도 재난안전관리 미흡사항 개선 △기관장, 부기관장의 재난 상황 대응 역량 △재난대피훈련 및 재난문자 송출 훈련 실적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실태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대응체계 유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초동 조치 역량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성아 기자



광주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6일 송정동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도전, 장애이해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 광산구 제공

북구, 마을공동체 거점시설 '건국다복마루' 완공

나눔커뮤니티실·공유주방 등
주민 소통·휴식·배움터 기대

광주 북구가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거점시설 '건국다복마루'를 조성했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건국다복마루 조성사업이 최근 마무리됐다. 북구 건국동은 최근 분동 등으로 주민 결집력이 다소 약화돼 주민 소통 강화와 마을 활동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 조성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북구는 건국동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2022년 지역사회 역량 강화 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해 국·시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이후 주민 의견수렴, 실시 설계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지난 1월부터 약 5개월간 공

사를 진행해 마을공동체 거점시설을 조성했다.

건국다복마루는 광주 북구 건국동 행정복지센터(본촌마을길 25) 부속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해 연면적 207.7㎡, 2층 규모로 조성됐다.

층별 주요시설은 △1층 나눔커뮤니티실, 문화나눔터 △2층 공유주방, 야외테라스 등으로 마을주민 소통과 활동 편의를 위한 공간이 배치됐다.

시설은 건국동주민자치회에서 맡아 주민 주도로 운영되고 북구는 건국다복마루가 마을 특화사업 운영 등 다양한 주민·공동체 자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준명 기자

광산구, 사회적처방 건강활동가 250명 양성

호남대학교 협약으로 교육 운영
예방적 의료·돌봄 전문 인력 육성

광주 광산구가 광주 지자체 최초로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은 100세 시대를 이끌 사회적처방 건강활동가 양성에 나선다. 광산구는 17일 구청 7층 운상원홀에서 호남대학교와 함께 '사회적처방 건강활동가 양성 교육 입학식'을 개최했다. 민선 8기 역점 시책 중 하나로 '100세 시대 커뮤니티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산구는 지난해 수완문화체육

센터에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를 구축, 이를 중심으로 지역 기관·단체와 협력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

사회적처방은 의료적 처방 외에 생활습관 개선, 예술, 교육, 자원봉사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의 '사회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번 양성 교육은 사회적처방 실행·실천을 돕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활동 중인 건강활동가(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연계) 100명을 비롯해, 광산구 '1313 이웃살림' 이웃지기 등 돌

봄 활동가, 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 25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한다.

광산구는 지난해 11월 '사회적처방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한 호남대학교와 10월까지 대상에 따라 총 세 가지 과정으로 교육을 운영한다.

이날 입학식을 시작으로 먼저 노인일자리 연계 건강활동가 대상 실무 교육을 총 4회 진행하고, 이웃지기 등 지역활동가의 역량을 높이는 기초교육과 복지·의료 분야 직업군 대상 '건강지도(코칭) 실무자 과정'을 각각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처방의 핵심 요소인 운동, 영양, 관계, 간호 등 호남대학교 7개 학과 교수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김상철 기자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남구, 4:1 경쟁률 뚫은 5팀 지원

광주 남구가 창업 아이디어 공모에서 4대1 경쟁률을 통과한 예비 창업가의 사업 구상 상품화에 나선다.

남구는 17일 초기 창업자가 개발한 상품의 온라인 마케팅 진출 및 가공 상품의 기계화 공정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창업 아이디어 공모 및 사업화는 민선 8기 김병내 구청장의 공약으로, 남구는 올해부터 창업 생태계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기존에 500만원씩 지원하던 사업비를 2배로 늘리고, 지원 대상 규모도 2배 가량 확대했다.

남구는 오는 8월부터 5000만원을 투입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예비 창업가 2개 팀과 사업 초창기를 맞은 창업자 3개 팀에 각각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남구에서 지원하는 5개 팀은 지난 4월 창업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한 18개 팀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은 예비 창업가와 초기 창업자이다.

이 중에는 온라인 쇼핑몰 CEO 이력을 비롯해 공공기관 주최 아이디어 공모전 다수 입상과 창업 분야 피칭 대회에서 상을 받은 실력자들이 포진해 있어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도 기대된다. 박찬기 기자

'다문화 지원사업' 7년 연속 선정
운남어린이도서관

광주 광산구는 운남어린이도서관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관하는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 7년 연속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남어린이도서관은 26일부터 지역 초등학생 대상 '세계문화여행', '세계문화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독후활동과 연계해 이주배경 어린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상호문화 존중과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 신청은 광산평생학습포털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운남어린이도서관(062-960-8301)에 문의하면 된다.

운남어린이도서관 관계자는 "지역 어린이들이 독서 활동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